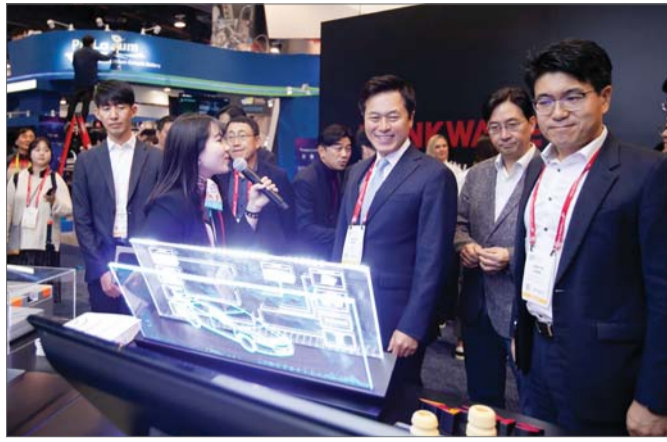


# '5G 먹거리' 구상, 이통3사 수장 글로벌 행보

**SKT** 박정호 사장 네번째 CES행 5G 모빌리티·미디어기술 등 소개

**KT** 황창규 회장 CES 대신 이달말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가

**LGU+** 하현희 부회장 올해도 CES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속도 구상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해 열린 'CES 2019' 전시장 내 SK 관계사 공동 부스에서 전시 아이템을 둘러보고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오른쪽부터 세 번째)이 지난해 열린 CES서 센트럴 홀에 위치한 인텔 전시장을 방문, BMW 이어 포드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GU+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이 연초부터 글로벌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미래 먹거리 구상을 위해서다.

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오는 7일부터(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가전 전시회 'CES 2020'을 직접 찾는다. 황창규 KT 회장은 CES 대신 1월 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국제기구 수장 및 리더들과 자리를 함께 할 방침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CES 방문

은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박정호 사장은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이완재 SKC 사장 등 SK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과 함께 CES를 둘러볼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CES에 그룹 공동 전시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은 CES에서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C와 함께 5G 기반 모빌리티와 미디어 기술·서비스를 선보인다. SK텔레콤은 이 전시를 통해 삼

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고화질TV와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다 등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 열린 'CES 2019'에서 미국 최대 규모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 방송 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 기어 하만과 싱클레어 방송 그룹과 차량용 플랫폼을 공동 개발 협력에 나서는 등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보인 바 있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임직

원과 함께 CES를 참관하고, 자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구상에 나선다. 하 부회장은 페이스북, 티모바일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을 만나 각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을 공유하고, 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과 5G 디바이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빅데이터가 접목된 스마트 서비스도 살펴볼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

해 통신·미디어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전략 책임 'CSO' 산하에 디지털 전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는 'DX 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의 수장들이 CES에 발걸음 하는 이유는 신사업 발굴 때문이다. 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이동통신 사업도 전통적인 무선 사업에서 벗어나 자율주행차, 미디어 사업 등 다방면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매년 1월 열리는 CES는 5G 통신을 기반으로 자동차, 통신 등 업종을 뛰어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ICT 기업이 모이는 CES는 글로벌 제휴·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인 셈이다.

오는 3월 임기를 마치는 황창규 KT 회장은 CES에 불참하는 대신 오는 21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출장에 나선다. 황 회장의 다보스포럼 출장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이다. KT 차기 CEO로 예정된 구현도 코스터머&미디어부문 사장은 내부 소통과 사업 구상에 매진할 것을 알려졌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LG전자, 加 인공지능社와 손잡고 AI 새정립

CES서 엘레먼트 AI와 업무협약 체계적 발전위한 공동연구 진행

LG전자가 캐나다의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엘레먼트 AI와 손잡는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목표다.

LG전자와 엘레먼트 AI는 현지시간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 엘레먼트 AI CEO 장 프랑스와 가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엘레먼트 AI는 CEO 장 프랑스와 가네가 딥러닝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교수 겸 밀라연구소 창업자 요슈아 벤지오 등과 함께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다. 금융, 유통, 전자 등 여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양사는 인공지능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LG전자 트윈타워 빌딩. /뉴시스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최근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수히 거론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양

사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고객의 삶에 더 빠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엘레먼트 AI CEO 장 프랑스와 가네는 "LG전자와 함께 인공지능의 여정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라며 "양사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로서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술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인공지능이 고객의 삶에 더 높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며 "엘레먼트 AI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의 체계적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일평 사장은 현지시간 6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장 프랑스와 가네 CEO와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 美 CES에 '서울관' 첫 조성 박원순, 혁신기업들과 동행

유망 혁신기업 20개사와 참가 벤처 캐피탈과 피칭데이 예정

서울시는 오는 7~1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서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국내 20개 기업과 함께 서울시장으로서 처음으로 CES에 참가한다.

서울관은 스타트업 기업과 각국 국가관이 모이는 '유레카 파크'(테크 웨스트)에 290㎡ 규모로 조성된다. 전시실은 ▲국내 20개 혁신기업 부스 ▲비즈니스 미팅공간 ▲디지털 시민시장실 ▲스마트도시 서울 홍보 공간으로 꾸며진다.

기업들은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 정보를 측정하는 애플 리케이션, 인공지능으로 개성을 가진 음악을 만들어주는 AI 성우 서비스, 모공·주름 등 피부상태를 3D로 측정해 제품을 추천해주는 스마트 거울, 원거리 무선충전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이들 기업은 서울창업허브에 입주했거나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 등 시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이다.

시는 CES 참가기업에 100만원 이내의 항공료와 50만원 이내의 제품 운송비, 현지 통역,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한다.

8일(현지시간)에는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을 서울관으로 초청해 기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스마트 거울. /서울시

업을 알리는 행사인 피칭데이가 열린다.

시는 서울관과 별도로 스마트시티(테크 이스트)에 '서울라운지' 부스를 만들어 시청의 시장실과 비슷하게 연출하고 대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CES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서울관은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혁신기업에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서울의 혁신적인 스마트행정을 세계 무대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데이터 분석, 활용하는 내부체계 조성을"

>> 1면 '금융업 빅데이터'서 계속

서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데이터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데이터 분석 결과가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결합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고객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므로 이를 분석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는 금융·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이종 정보 간 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고객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선 복수의 정보집합물 간 결합이 중요하나, 그동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을 위해 각 정

보집합물에 대한 비식별조치 및 이에 대한 전문가의 적정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 제휴사와 고객의 정보를 주고받는 인프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